정읍시 "시민 중심 핵심 과제 추진"

이학수 시장 신년 회견 개최
공공앱 활성화 등 소비 진작 도모
바이오 산업 육성·인재 양성 노력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정읍시, 다 함께 잘 사는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21일 신년 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새해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중심의 으뜸 정읍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주목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업 유치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엔피케이와 바이오 메이신 등 16개 기업을 유치해 32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 규제혁신센터와 동물의약품 기회 발전 특구 지정으로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했다고 정읍시가 전했다.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새해 시정 비전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정읍시 제공〉

행정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과 60개 분야 수상, 약 8억 7800만원의 인센티브 확보라는 성과를 냈다.

이 시장은 2025년을 '희망 경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기본소득, 카드수수료 지원 등으로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하며 정읍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과 공공 배달앱 활성화로 소비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 산업에 각각 529억원과 310억원을 투입해 관련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힘쓴다. 반려동물 산업에도 333억원을 투자해 기능성 사료 및 펫푸드 산업화를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중심의 혁신적 시정을 이어가겠다"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확산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개관 등을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정읍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2025년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해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협력해 정읍의 발전을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장학재단, 지난해 역대 최대 모금

118명 3억5300만원 기부

고창군장학재단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장학금 모금 성과를 올려 올해 지역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창군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학금 모금액이 3억5300만원으로 기부자는 118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6000만원이 늘어난 수치로 1997년 장학재단 설립 후 최대 금액이다.

재단 측은 "삼성전자 분양 확정, 1000만 관광시대 개막 등 지역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단 장학금의 지급액이 대폭 늘었다. 4개 분야(성적우수·향상, 특기(예·체·기능), 농어촌활력, 다자녀가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775명을 선발해 4억7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서울과 전주 장학숙을 기존 2인실에서 1인실로 바꾸며 MZ입사생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학습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으로는 지난 2년간 총 241명에게 5억2157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1~3학년 학생들에게 연 최대 3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춘향제 4월30일~5월6일 개최

첫 회의 갖고 준비 시동…일주일 간 광한루 일원

지난해 5월 남원시내에서 열린 제94회 춘향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프로그램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가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일주일 간 남원 광한루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한 제95회 춘향제의 기본계획, 예산(안),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 중장년 세대를 타깃으로 한 공연 활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연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장은 "춘향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 춘향제는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 프로그램,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기반 F&B 운영, 유채꽃밭 신규 조성 등을 통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품질 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곤충산업 육성' 경영비 1억2000만원 투입

곤충사육 위한 종충·먹이원 지원…이달까지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농가의 경영비를 지원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관련 2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곤충사육농장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1일까지 곤충산업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곤충업 신고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추진 사업중 하나인 '곤충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곤충사육을 위해 필요한 종충과 먹이원을 지원한다.

불안정한 판로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을 통해 지속적인 곤충사육을 지원해 농가의 만족도 역시 높은 사업이다.

도비사업인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은 곤충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거나 필요한 기계·장비를 통해 균일한 원물생산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접수 결과를 토대로 내달 초 대상자를 확정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남원시청 축산과 곤충산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래 신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곤충사육 농가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사회복지사 1700명에 '활력수당'

고창군이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설 명절 전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활력수당'을 지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한 총 1억3000만원의 활력수당을 지급한다며 사회복지시설 101개소, 1700여명에게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확정된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분야 수행기관 종사자 등으로 올해 1월 기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전일제 또는 반일제 근무자다.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장 중심의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반일제 근무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전년도에 전일제 근무자(연 10만원)에게만 지원했던 활력수당을 반일제 근로자(연 5만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많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활력수당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사회복지분야 대표 공약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일선에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기 진작을 통해 고창군의 복지 서비스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산림조합 청소년 진로 교육 협약

정읍시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실무 체험을 위해 정읍산림조합과 힘을 모았다.

정읍시는 청소년수련관과 정읍산림조합이 최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과 실무 경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정읍산림조합은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며 약 40명의 청소년이 현장 학습과 체험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체험하고 꿈 잡고(JOBGO)'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영락 관장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 체험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